

카리브해 긴장고조…美 항모 투입 vs 베네수 軍 동원령

美 정부 “마약밀매 차단 역량 보장”…베네수, 마두로정권 전복 시도 의심

베네수軍, 예비군까지 동원해 군사 훈련…美에 게릴라전술 대응 관측도

중남미 카리브해에서 미국과 베네수엘라간 군사적 긴장의 파고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마약과의 전쟁’을 명분으로 카리브해에 미군 병력을 대거 배치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전복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 되는 가운데 미군의 항공모함(항모) 전단이 베네수엘라 인근에 도착했다.

이에 맞서 베네수엘라는 육해공군은 물론 예비군에 대한 대규모 동원령을 발령하고, 훈련을 실시하기로 해 두 나라가 일촉즉발의 군사적 충돌 위기로 치달을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미 해군은 11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지중해에서 작전을 수행해온 제럴드 포드 항모 전단이 미군 남부사령부 작전구역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미군 남부사령부 작전구역에는 멕시코 이남 중남미 지역과 주변 해역, 카리브해 등이 포함

된다.

지난 2017년에 취역한 포드 항모는 미국의 최신에 항모이며, 세계에서 가장 큰 항모이기도 하다.

항모 전단은 이 지역에서 마약 카르텔을 상대로 군사 작전을 수행해온 미군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전개를 지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마약을 밀수하는 베네수엘라의 마약 카르텔들을 테러단체로 지정했으며, 미군 자산을 카리브해로 보내 ‘마약 운반선’을 격침해 왔다.

이에 베네수엘라는 “마두로 대통령 축출이 미국의 진짜 목적”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돼왔다.

미국 언론도 트럼프 행정부가 마두로 정부 전복 목적으로 다양한 군사적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군은 지난 9월부터 지



베네수엘라 해군 순찰선이 11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푸에르토 카베요의 엘 팔리토 정유공장 인근에서 파나마 국적 원유 유조선 요셀린호를 호위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이날 자국 해안에서 미 해군의 존재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전국 규모의 군사 배치를 발표했다.

/AFP=연합뉴스

금까지 카리브해와 동태평양에서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상대로 최소 19차례 공습을 가해 최소 76명을 살해했다.

이 지역에는 이미 군함 8척, 원자력 추진 잠수함, F-35 전투기 등이 배치됐다.

손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들 전력은 마

약 밀매를 차단하고 초국가적 범죄단체들을 제해·해체하기 위한 기존 역량을 강화·보강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네수엘라는 군사력에서 미국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열세라는 평가를 받지만, 마두로 정권을 겨냥한 미국의 군사적 조치에 맞서

갠다며 항전 의지를 밝히고 있다.

CNN 방송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로페스 베네수엘라 국방장관은 이날 미 해군의 포드 항모 전단 추가 투입 등 이 지역에 대한 미군의 군사력 증강에 맞서 베네수엘라가 자국의 병력, 무기, 군사장비를 대규모로 동원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번 동원령이 마두로 대통령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며 베네수엘라의 육군, 해군, 공군 및 예비군들이 12일까지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베네수엘라의 정규군뿐만 아니라 볼리바르 민병대가 훈련에 참여한다고 CNN은 전했다.

이런 가운데 로이터 통신은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군의 군사적 행동이 현실화할 경우, 베네수엘라군은 현실적인 전력 차이를 고려해 미군에 정면 대응하기보다는 ‘게릴라 전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군으로부터 공중 또는 지상 타격을 받으면 소규모로 편성된 부대가 산개해 전국 280여곳에서 각각 전투시 대응을 한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中, 스텔스 J-20 전투기·G-11 드론 유·무인 편대 영상 공개

中 군사전문가 “훈련 단계일 수 있다”

중국 공군이 쟈(殲·J)-20 스텔스 전투기와 GJ(攻擊·공격)-11 스텔스 드론(무인기)의 합동 작전 편대 영상을 공개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민해방군 공군이 창설 76주년을 기념해 전날 공개한 홍보 영상에서 전자전에 대비한 이 같은 유·무인 합동 전투 전력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무인 GJ-11 스텔스 드론이 앞서 비행하며 타격 목표물에 더 가까이 접근하고 있으며 J-20과 J-16D가 뒤따른다.

J-20은 코드명이 웨이룽(威龍)이며 중국 공군이 실전 배치한 최첨단 5세대 스텔스 전투기다. J-20은 미국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에 맞



GJ-11 스텔스 드론(맨 앞), J-16D(뒤편 왼쪽), J-20.

/홍콩 SCMP 캡처=연합뉴스

선 중국 공군 현대화의 상징으로 통한다.

‘샤프 소드’(Sharp Sword)로 알려진 GJ-11 스텔스 드론은 정밀 유도탄 발사 기능이 있으며 전자전 용도로 개발됐다. 076형 감습상륙함 탑재용이기도 하다.

중국군은 GJ-11을 2021년 주하이 에어쇼에서 선보였으며 지난 9월3일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도 과시한 바 있다.

J-16의 개량형 J-16D는 전자기 간섭을 이용해 적의 공격을 억제할 수 있는, 전자전에 특화된 전투기다.

전자전에선 통상 적의 네트워크·레이더·통신 등을 교란하거나 해킹해 피해를 주고 아군의 정보와 전자적 측면의 우위를 확보한다.

스텔스 기능의 J-20과 GJ-11의 합동 작전 때 공격 능력이 크게 확장된다는 점에서 편대 편성이 예상됐으나, 관련 영상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SCMP는 전했다.

이 신문은 “홍보 영상 속의 GJ-11 스텔스 드론의 코드명은 ‘쉬안룽 08’이고 J-20 스텔스 전투기의 코드명은 ‘웨이룽 01’”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GJ-11이 앞장선 공격으로 J-20의 공격력이 확장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J-16D 전투기는 전자전 능력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군사분석가인 쑹중핑은 “유인 스텔스 전투기 J-20과는 달리 GJ-11은 지상에서 조종하지만 서로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GJ-11이 강력한 관통력의 무기를 갖춘 J-20의 공격력을 크게 확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J-20, GJ-11, J-16D로 구성된 편대는 스텔스 기능과 전자기 간섭을 활용해 적의 방공망과 레이더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도 현재로선 GJ-11 등 스텔스 드론의 J-20 협력 작전은 아직 훈련 단계일 수 있다고 짚었다.

/연합뉴스

자카르타 고교 폭발사건 17살 용의자, 집에서 폭탄 제조

최근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폭발물을 터뜨려 90여명을 다치게 한 17살 용의자는 집에서 혼자 사제 폭탄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경찰은 지난 7일 자카르타 북부 SMA 72 고등학교에서 폭발물을 터뜨린 17세 학생 용의자가 집에서 소형 폭발 장치를 조립했다고 밝혔다.

현지 경찰 기동대 관계자는 “이 학생은 6V(볼트) 배터리, 플라스틱 용기, 리모컨, 못 등 매우 간단한 재료로 폭탄 7개를 만들었고, 이 가운데 4개가 (당시에) 폭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터지지 않은 나머지 폭탄을 확보했다”며 용의자는 인터넷에서 본 제조법에 따라 혼자서 폭탄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이만 이마누딘 자카르타경찰청 형사수사국은 기자회견에서 “용의자는 가족뿐만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 어디에도 불만을 토로할 곳이 없다고 느꼈다고 한다”고 말했다.

초기 조사 결과 17살 용의자는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뒤 범행한 것으로 추정됐다.

/연합뉴스

매드맥스 한장면처럼…

러군 오토바이 부대로 최전선 돌격

오토바이에 올라타 짙은 안개 속을 질주하는 러시아군의 행렬이 끊이지 않는다.

한 병사는 세단으로 보이는 차량 지붕 위에 올라탔다. 문이 떨어져 나간 세단에는 군 보급품으로 보이는 물건들이 가득 차 있다. 긴 차량·오토바이 행렬은 총을 들고 선 군인들의 엄호를 받고 있다. 깊이 팬 도로 위에는 언제라도 비행할 준비가 된 듯한 드론 한 대가 놓여 있다.

로이터 통신, 미 NBC 방송 등 외신이 11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전쟁 관련 블로그를 인용해 공개한 영상에는 우크라이나로 진입하는 러시아군의 차량 행렬 모습이 담겼다.

유튜브 등에도 올라온 같은 영상에는 “영화 매드맥스의 한 장면 같다”는 댓글이 달렸다. 매드맥스는 1979년 개봉한 영화로 종말론적 세계관을 배경으로 황무지에서 경찰과 폭주족의 추격전 연출로 유명하다. 로이터 통신과 NBC는 영상 속 표지판, 송전탑, 도로 구조 등을 위성 이미지와 대조한 결과 우크라이나 점령 요충지 포크로우스크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최근 포크로우스크 시내에 침투해 이 지역 대부분을 점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이 함락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방어선으로 삼은 도네츠크의 주요 도시로 진격할 발판을 확보하게 된다.

/연합뉴스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심의번호
220603-중-139779

